

WORKWIDE

of

MILLENNIALS

Welcome to 'Me-World'
Open-Blindness
Realm of 'Hyper-Efficiencies'
Keeper Calculators in the Head

Let's be Fair and Square
I'm the PD of my own
Further Option Preferred
Exhibit your office



본 내용은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 2019에서
일부 소개되었습니다.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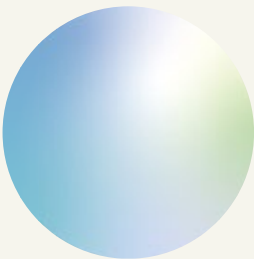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의 워킹라이프스타일과 사무환경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이자 직업관에 착안하여
WORK&LIFE 라는 영어 키워드를 뽑았다. 그리고 단어의 두운에 맞추어 밀레니얼
세대의 워킹라이프스타일을 8가지로 정의해 보았다. 퍼시스는 그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조직 운영방식 및 조직 문화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사무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Welcome to
'Me-World'

‘나’중모드



Open-
Blindness

오픈블라인드



Realm of
'Hyper-
Efficiencies'

초효율주의자



Keep
Calculators
in the Head

내 머릿속의 계산기



Let's be Fair
and Square

페어플레이어



I'm the PD
of my own

프로듀스 A to Z



Further Option
Preferred

多多 옵션



Exhibit your
office

오피스 스트리밍

#KEYWORD:

WORK&LIFE →

‘나’중모드

Welcome to 'Me-World'

#인생의_목적은_나 #월급만큼_워라밸도_중요해 #나나랜드

#회사는_수단일_뿐 #모드전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성공적인 커리어보다는 ‘나’의 일상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 취미를 하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제대로 된 취미를 즐기고 이것이 N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회사와 일상을 구분하는 온·오프모드 전환에 능숙하다. 모드 전환을 위해 치밀하게 시간 관리를 한다.

이번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첫 번째 키워드는 나중모드(Welcome to 'Me-World')이다. 나중모드란 ‘내가 가장 중요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 무엇보다 나라는 개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시한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1980년대 경영학에서 등장한 용어로, 원래는 직장 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개인을 우선 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면서, 가정이 아닌 ‘나’라는 개인과 직장 생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모하였다. 내가 중심인 밀레니얼에게 회사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퇴근하고 나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놀이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밀레니얼 직장인, 30대)

이들은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퇴근 후 나의 일상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과 일상을 구분한다.



☞ 퇴근 후 미술관이나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회를 즐기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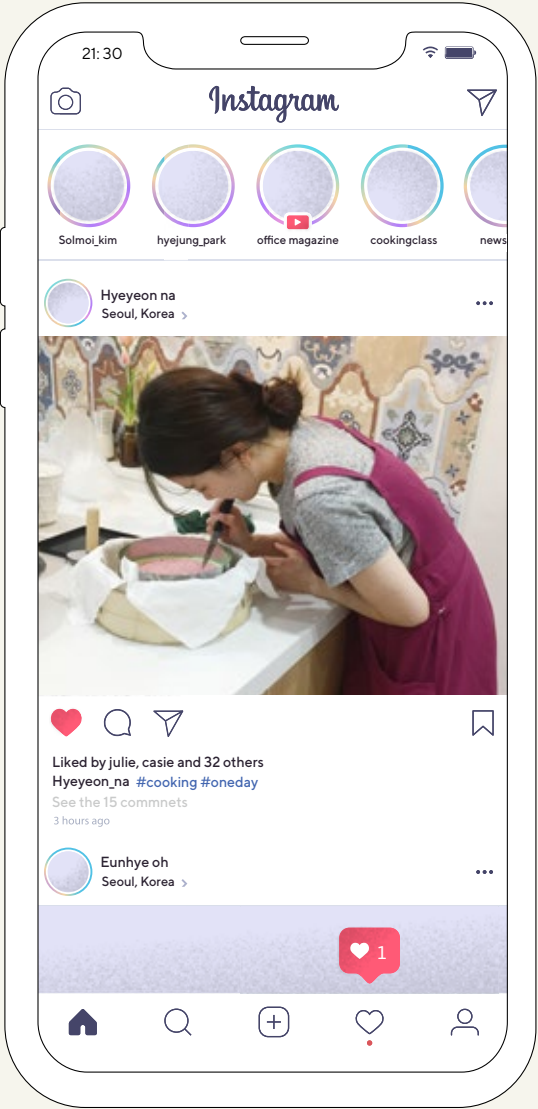
나의 일상에 집중하다, 취미도 내 인생 #나나랜드

“지방을 순회하는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면 저희 때는 거기 들어가
살았거든요. 팀장, 과장도 같이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사택에
안 들어가요. 직장생활을 24시간 할 수 없다
는 거죠.” (X세대 직장인, 40대)

X세대와 비교했을 때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일보다는 또는 일만큼 퇴근 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상사와 함께하거나 단합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회사 모임을 갖는 것에 큰 불만을 표한다.



☞ 퇴근 후 다양한 활동을 취미로 즐기는 직장인



“예전에는 퇴근 후에 매일 친구를 만났었어요.
요즘은 약속도 관리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그런 식으로 만나요. 다른 날에는 집에서
쉬거나 혼자 공원 산책하면서 회사에서 힘들
었던 것들을 풀곤 합니다.” (밀레니얼 직장인, 20대)

밀레니얼 세대는 주 1회만 친구와 약속을 잡는 등 퇴근 후 일정도 철저하게 관리하며 대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문센족’, ‘홈메니저’, ‘운동족’ 등 퇴근 후 라이프를 지칭하는 용어가 더욱 많아진 이유도 직장인들이 반복적인 술자리나 약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과 일상(上), 때 순간 철저하게 매니지먼트 #모드전환

최근 퇴근 시간의 풍경을 재치 있게 풀어낸, 한 커피 회사의 광고가 화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퇴근 순서를 생각해보면, 서열에 따라 부장님이 먼저 퇴근하고 나서야 남은 직원들이 차례로 짐을 싸는 모습이 떠오른다. 팀의 막내라면 가장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 선배들을 돕고 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 광고에서의 막내는 사뭇 다르다. “**오늘도 매 순간 불태웠으니 망내** 먼저 가보겠습니다.”라며 ‘망’내 사원이 가장 먼저 상사에게 퇴근 인사를 하고, 상사는 애써 쿨한 척 퇴근을 허락한다.

얼핏 이런 막내의 모습이 버릇없고 회사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말로 밀레니얼이 업무를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저만의 목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하며 기운을 많이 쓰다
보니, 퇴근 후에는 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밀레니얼 직장인, 20대)

회사에서는 집중해서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는 자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 누구보다 치밀하게 시간을 관리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 출근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내에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I 에어부산 피트니스 센터

	오픈블라인드
	<i>Open-Blindness</i>
#보이되_보이지_않는다 #나만의_오아시스 #데스크테리어 #케렌시아	
내 영역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내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나를 숨긴다. 회사 책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놓아 나의 업무 스타일에 최적화되도록 꾸미는 반면 휴게실만큼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환경을 선호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업무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점심시간에는 어딜 가고, 어디에서 휴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로서 ‘오픈블라인드’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오픈블라인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한편 세상과 차단된 상태로 나의 익명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미묘하고 이중적인 상태를 뜻한다. 밀레니얼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나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숨기고 싶어 한다. 회사 책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내 영역임을 표시하면서, 점심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공간으로 숨어든다.

이 구역의 주인은 나야 나 #나만의_오아시스 #데스크테리어

밀레니얼 세대의 책상 위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책상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전시하거나 좋아하는 색깔을 콘셉트로 책상을 꾸며놓은 모습, 작은 화분을 놓거나 머그컵에 식물을 담아 키우는 모습도 자주 발견된다. 만약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율좌석을 시행하는 기업이라면, 개인 사물함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사물함 도어에 그림을 그려 자신을 드러내고, 사물함 안에 스티커 또는 사진을 붙여 꾸미고, 좋아하는 간식으로 ‘내 공간’을 채우기도 한다.

밀레니얼 직장인은 자신의 영역에 한정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며 그들 나름의 활력을 얻는다. 이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된다.

MILLENNIAL TEST

☐

내 책상을 캐릭터 피규어나 식물 등으로 꾸며놓았다.

☐

사진이나 스티커, 또는 그림을 그려 개인 사물함을 꾸며놓았다.

☐

사물함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간식으로 가득하다.

☐

노트북 겉면이 다양한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다.



👤 퍼시스 직원 PC 👤 퍼시스 개인 락커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퍼시스의 직원들은 지급받은 PC 또는 배정받은 개인 사물함에 저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나만의 힐링 플레이스 #케렌시아*

이들은 나를 드러낼 때는 확실히 자신을 ‘오픈’하지만, 휴식을 원할 때는 철저히 남의 시선과 관심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점심시간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가 주니어였을 때는 항상 팀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있어도 ‘점심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것 없이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앉아요.” (X세대 직장인, 40대)

밀레니얼 세대의 점심시간은 X세대와는 달리, 온전히 그들만의 시간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휴게실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기도 하고, 자기 자리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기도 한다. 심지어 밖으로 나가 쇼핑을 하거나 운동을 하며 그들만의 온전한 시간을 즐긴다.

반면 휴식 시간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나1인용 가구로 구획된 휴식공간 또는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공간에서 이너피스^{Inner Peace}를 추구하며 외부로부터 ‘블라인드’되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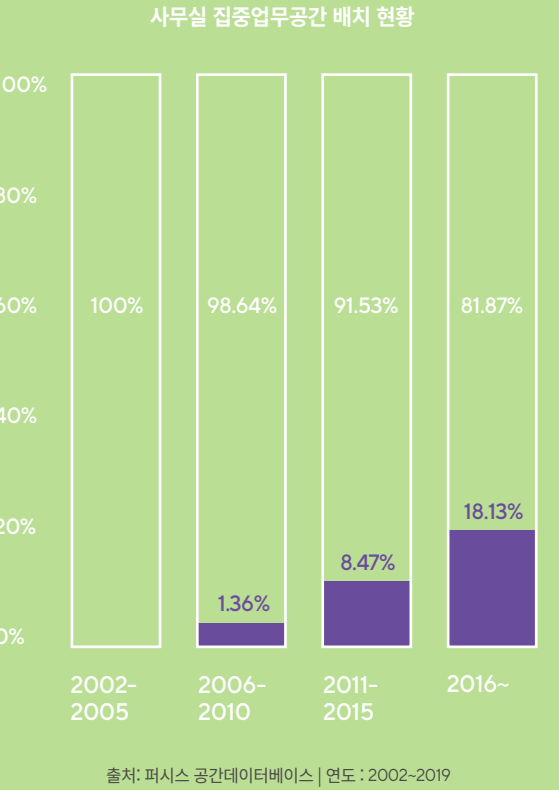
*케렌시아(Querencia) : 스페인어로 피난처 또는 안식처를 뜻한다.



👤 여의도 IFC몰 👤 삼성역 코엑스몰

사무실이 밀집한 백화점 또는 쇼핑몰은 직장인들의 또 다른 휴게 공간이자 런치 쇼핑의 장소다.

TIP! 직원들의 업무 집중을 돕는 독립 공간



집중업무공간은 직원들이 업무 리듬에 따라 혼자 집중하여 일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들어 기업들이 새롭게 계획하는 공간 중 하나이다. 오픈플랜 오피스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몰입을 위한 솔루션으로 독립적인 집중업무공간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퍼시스 공간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평균 국내 기업의 18.13%가 오피스 내 집중업무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집중업무공간은 부스 형태의 독립공간 또는 반개방적 집중공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부스형태의 독립공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부스 형태의 독립공간

첫 번째 방식은 소음을 줄여주는 부스 형태의 독립공간이다. 폰부스로 활용하여 통화 시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주변의 대화 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집중 업무를 하는 용도로도 유용하다.



- 1 롯데컬처웍스
- 2 금호아시아나그룹
- 3 카카오 모빌리티
- 4 엑센트리 LEVEL-X
- 5 현대카드·현대캐피탈 휴게실
- 6 현대카드·현대캐피탈 휴게실



↑ ↓ 퍼시스 시스템부스

업무공간 곳곳의 반개방적 집중공간

다른 하나는 반개방적(Semi-opened) 독립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업무공간 곳곳에 시각적으로 차단된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업무 리듬에 맞추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점심시간에는 나만의 '케렌시아'를 원하는 이들에게 개인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업무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경우, 자유롭게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Nap & Relax Zone'을 사내 곳곳에 마련하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들이 피로를 풀고 업무에 복귀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서서 수면공간을 만든 것이다. 최근에는 층별 휴게실을 리모델링하며 의자 대신 빈백을 두어, 직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반개방적 집중공간

← 퍼시스 플레이웍스



	초효율주의자
	<i>Realm of 'Hyper-Efficiencies'</i>
#업무_효율_극대화 #안티_회의주의자 #효율적_소통	
회의도 절차도 미니멀리즘. 쓸모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역량의 기준이다. 회의를 위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절차보다는 일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밀레니얼은 초등학교 즈음 PC를 사용하기 시작한 IT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PMP*나 전자사전이 보급되었고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아왔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과 공간,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생활 패턴을 관리해온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일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간 내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맹목적인 야근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화와 관습을 지양한다. 이렇게 효율을 중시하는 밀레니얼의 모습은 세 번째 키워드, ‘초효율주의자’에 담겼다.

*PMP: Portable Media Player의 줄임말로 언제 어디서나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휴대용 미디어 기기를 의미한다.

회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사람끼리
#안티_회의주의자

밀레니얼 직장인은 ‘끝없이 진행되는 회의’, ‘결정된 것 없이 끝나는 회의’ 등 비효율적인 회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원래는 습관적인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의의 목적이 뭔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하는지 등을 정하지 않았었죠. 일단 모이고, 토론하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쪽했는데 요즘에는 회의의 아젠다를 정하고, 미리 공유를 해서 회의 준비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숙지하고, 궁금한 점을 미리 다 적어오는 거예요.” (X세대 직장인, 40대)

이들은 회의 시작 전 스몰토크나 워업 시간도 지양한다. 꼭 필요한 사람만 모여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끝내고, 진행 절차를 최소화하여 시간의 낭비 없이 논의를 나누는 것을 선호한다.

링크드인의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는 비결 6가지

- 1 회의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 2 회의 주도자를 정한다
- 3 회의 원칙과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시간을 갖는다
- 4 회의 내용을 기록할 사람을 정한다
- 5 회의의 요점을 정리한다
- 6 회의를 마친 후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다

시간도 감정도 제로웨이스트 #효율적_소통

초효율주의자인 밀레니얼 세대는 소통할 때에도 간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본론이 명확한 직선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비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잘 이야기해요. $A \rightarrow B \rightarrow C$ 로 일하는데 $A \rightarrow C$ 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더 나은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X세대 직장인, 40대)

미래이얼 세대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무조건 고수하기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데 스펀지였다. 또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이 중복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엔 오히려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 젊은 직장인들은 프로젝트 담당자끼리 바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직선적인 소통 방식을 선호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의 협의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TIP! 협업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최근 많은 기업이 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회의안건 선공유, 회의 없는 요일·시간 지정, 회의참석자 최소화 등 회의 시간과 횟수를 줄이기 위해 회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 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 메신저 도구 슬랙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인 트렐로와 지라, 사내 위키^{Wiki*}를 만들 수 있는 컨플루언스 등 스마트한 IT 워크툴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워크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빠르게 업무를 이해하고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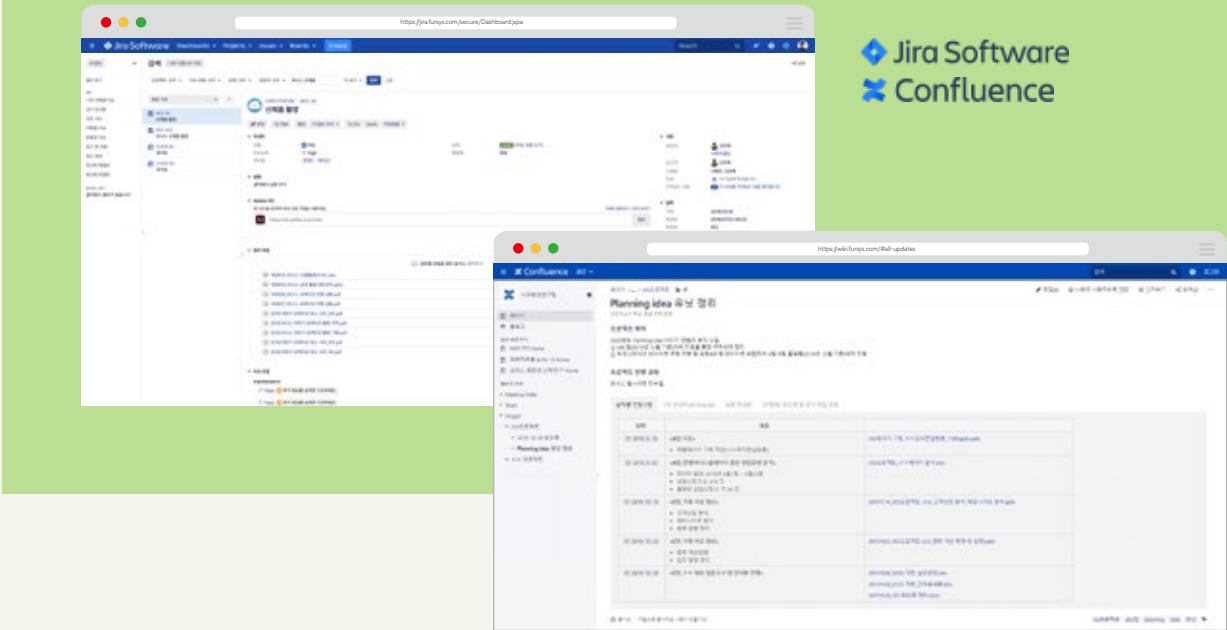
*^{Wiki} :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한 예로, 퍼시스 연구소는 트렌드 리서치나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원했다. 이에 2019년 6월 협업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부서가 컨플루언스와 지라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출근하면 항상 위키를 확인해요. 거기에 제가
무얼 해야 하는지, 팀 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지 다 쓰여있거든요. 상사에게 보
고할 때도 정리된 위키 페이지로 보여드려요.
따로 보고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미리 링
크를 전달하니까 의사결정도 더 빨라졌죠.”

(밀레니얼 직장인, 20대)

이 같은 협업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새로운 인원이 조직에 합류할 때에도 유용한 역할을 한다. 사내에서 진행된 업무 내용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인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인원의 인사 변동이 있을 때 교육 또는 인수인계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팀원들의 할 일 또는 업무 내용 등을 관리하기 용이한
지라, 컨플루언스 프로그램

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의 방식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회의 상황에 맞는 공간의 구성도 중요하다. 업무 특성에 적합한 공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듯, 협업 역시 그 내용과 방식에 어울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효율이 높아진다.

회의 시간을 단축해 줄 스탠딩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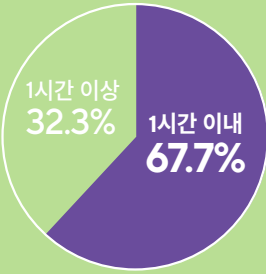
스탠딩 회의는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회의 방식이다. 스탠딩 테이블과 스톨 또는 스탠딩 테이블만을 배치해 의도적으로 몸이 약간 힘든 상황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한없이 늘어지는 회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의 딱딱한 회의공간보다 유연하고 색다른 회의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장점도 있다. 필요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함께 배치해 회의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실제로 퍼시스 본사 리뉴얼 후 스탠딩 회의실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1시간 이내로 회의를 끝내는 비율이 67.7%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인 회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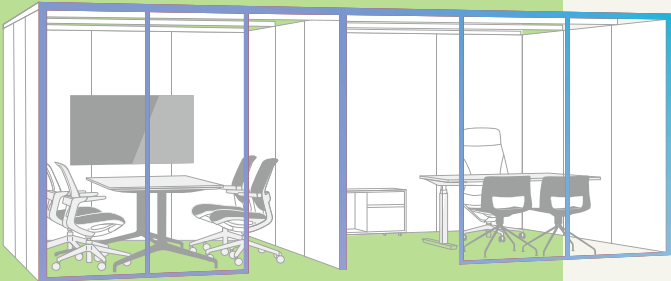
↑ 퍼시스 본사의 스탠딩 회의실

스탠딩 회의 시 회의 시간



즉각적인 회의를 위한 공간 솔루션, 시스템 부스

업무 중 수시로 발생하는 협업 또는 즉각적인 미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부스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자유롭고 캐주얼한 소통을 장려하는 일환으로 오픈형 회의공간을 마련하는 추세다. 시스템 부스는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 업무공간 내 반개방적인 소통 영역을 확보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스의 벽면은 니즈에 따라 화이트보드 또는 디스플레이 거치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 퍼시스 본사의 미팅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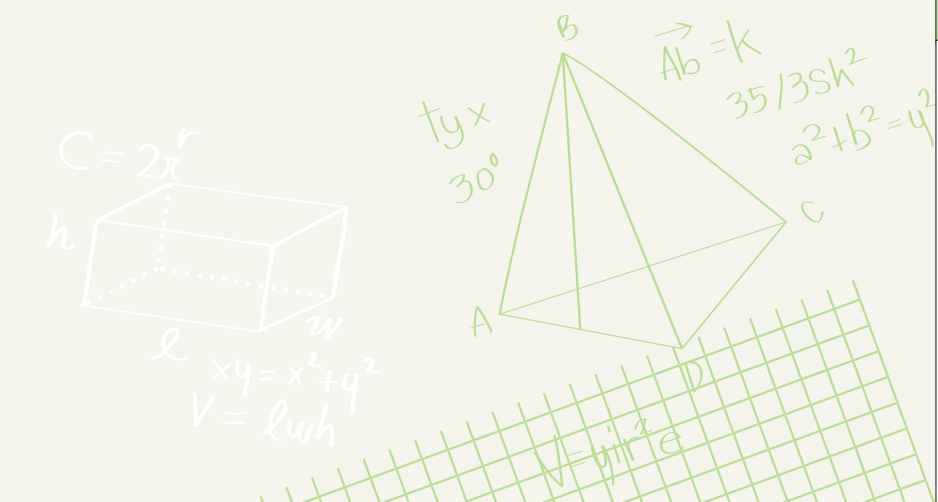


	내 머릿속의 계산기
	<i>Keep Calculators in the Head</i>
#나의_베네핏을_명확하게_계산한다 #기브앤테이크 #체리피커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도, 끈대 상사가 있어도 참았던 평생직장의 시대는 이제 갔다.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득실을 따지며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본인 것을 챙길 줄 안다. 그들에게 직장은 평생직장이 아닌 ‘내(my)’직장이다.	

회사와 동료들은 가족과 같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 가족 사이에 실리를 따지지 않고 헌신하듯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했으며, 직원들도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충성심을 갖고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밀레니얼은 IMF 외환위기를 통해 평생 고용의 신화가 깨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부모 세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퇴사를 경험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점을 줄 것인가?’ 하는 계산이 엄청 빨라요. 밀레니얼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 일합니다.” (밀레니얼 직장인, 30대)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본인의 것을 챙길 줄 안다. 네 번째 키워드인 내 머릿속의 계산기(Keep Calculators in the Head)는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고 무엇이든 하나하나 따져보는 밀레니얼의 모습을 상징한다.



회사와 내 인생은 #기브앤테이크

밀레니얼 세대에게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오히려 내 직장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에 끈대 상사가 있어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도 참았으나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무조건 참지만은 않는다. 회사나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직을 준비한다. 회사와 자신은 철저한 기브앤테이크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하면 ‘왜요, 사내 취업 규정에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사내 규정에 세세히 적어 놓지는 않잖아요.” (X세대 직장인, 40대)

이처럼 밀레니얼 직장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 하고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 업무나 회사 생활에 있어서 득실을 따지고 불만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겠다, 오피스 #체리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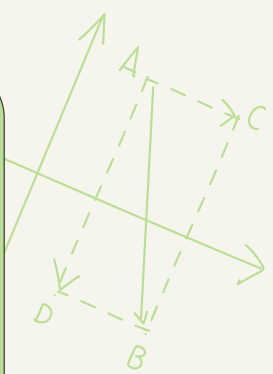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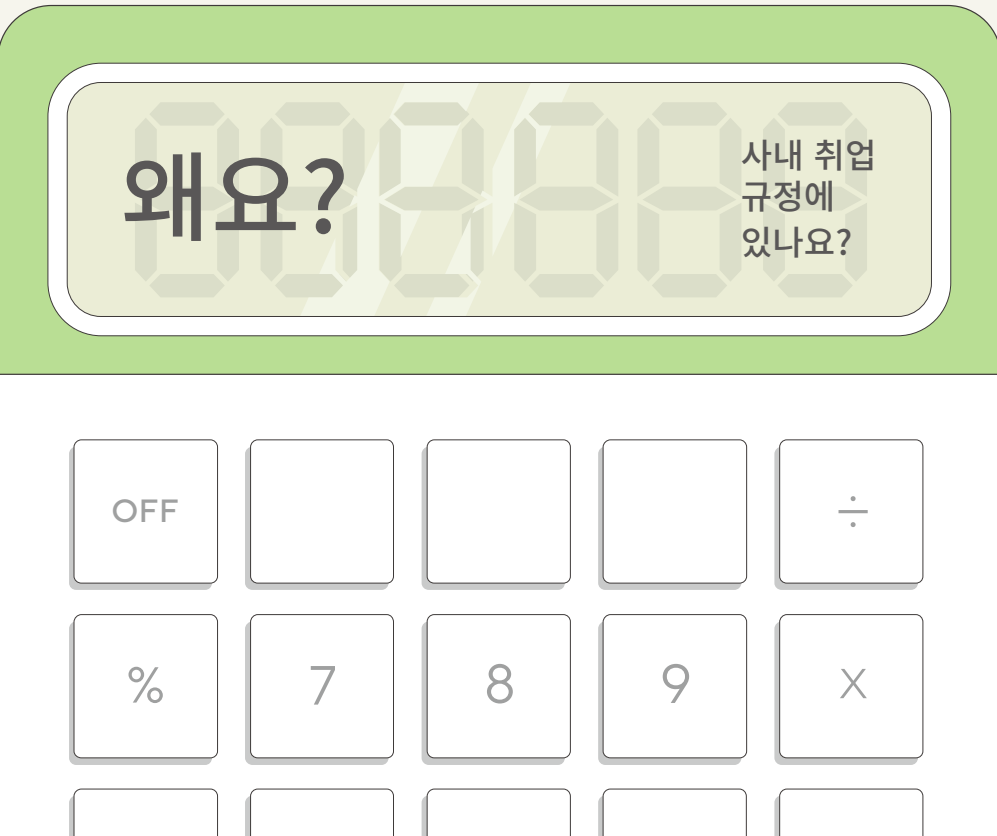
체리피커는 체리가 장식된 케이크에서 하나뿐인 체리를 쏙 빼먹는 사람과 같이 여러 기능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만 쓰는 사람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밀레니얼 직장인의 특성을 오피스 체리피커에 비유할 수 있겠다.

밀레니얼 직장인은 회사의 복지뿐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는다.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맡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커리어와 상관없는 잡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소위 ‘막내 업무’들을 내려주는 게 당연한데, 한 신입사원이 ‘이건 제 직무기술서에 없는 일인데 이걸 왜 저에게 시키세요?’라고 묻더라고요.” (밀레니얼 직장인,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막내 개념이 사라지고, 비품 구매나 간식 정리 등 소위 막내의 몫이었던 일들을 직원들이 나누어 하거나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스낵포, 스낵24, 간식으로 꾸며진 탕비공간. 간식 구매부터 진열, 배송, 뒷정리까지 담당하는 간식 정기 배송업체가 고객사 직원의 성향에 맞춘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어플레이어
	<i>Let's be Fair and Square</i>
#공명정대한_프로세스에_대한_열망 #인간_대_인간 #프로불편러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참으면 호구다. 수평적인 문화를 당연시하며 불편한 것들을 바로바로 개선하고 똑 부러지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투명과 평등에 목말라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올바르게 공정한 것을 추구한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직장에서 내 노력의 결과를 온전히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전에는 팀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면 비록 본인이 자료를 만들었지만, 팀장이 대표로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도 큰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다르다.

“아니 내가 4분의 1을 하는데 왜 팀장님이 더 많이 인정받아요? 4분의 1은 제가 한걸로 인정해주세요.” (밀레니얼 직장인, 30대)

직급에 상관없이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 R&R을 중요시하고 순종보다는 인정을 선호하며, 투명성과 평등에 목마른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상사와 부하직원이기에 앞서 #인간_대_인간

또 밀레니얼은 나이나 근속 연수, 지위에 따른 위계적인 관계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기업에서 직급 대신 ‘~님’, ‘~프로’ 등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해 호칭을 단순화하는 흐름과 마찬가지로, 밀레니얼 직장인은 업무 분배 역시 위계와 서열순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당연히 이들에게 좋은 리더란 단순히 오래 일한 상사가 아니라 확실한 능력이 있는 리더다. 상사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 공부를 하는 요즘의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공정에 대한 확실한 자기표현 #프로불편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젊은 페어 플레이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참으면 호구다.’라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이전에는 사원, 대리, 부장 이렇게 직급에 따라 연봉 인상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연봉은 몇 % 올랐는데 임원들은 몇 % 올랐어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X세대 직장인, 40대)

임원 연봉 인상률에 대한 궁금증은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위가 아닌 업적에 따라 인정받기 원하는 밀레니얼의 바람과 닿아있다. 밀레니얼의 공정성에 대한 갈망은 기업 포털 내 게시판이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유명한 ‘블라인드^{Blind}’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PROJECT OXYGEN :
구글의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10가지 행동

- 1 좋은 코치가 된다
- 2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되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 3 통합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여 팀원의 성공과 웰빙(행복)에 관심을 가진다
- 4 생산적이며 결과지향적이어야 한다
- 5 좋은 대화자가 되어 정보를 취하고 공유한다
- 6 팀원의 경력 개발을 돕고, 그들의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 7 팀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 8 팀에 조언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가진다
- 9 전사 직원과 협업한다
- 10 강력한 의사결정자가 된다

TIP!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문화와 오피스 환경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연봉은 더는 직장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 가능 여부, 워라밸,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한다. 특히 기업이 얼마나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가는 밀레니얼에게 점점 중요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동기 부여를 돕고 소속감을 높여주는 조직문화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밀레니얼 세대들만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전 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CEO와 직원 전체가 함께 하는 올핸즈미팅^{All Hands Meeting}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때 기업의 방향성과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거나,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회사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올핸즈미팅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직원과 경영진의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직급이나 담당 업무에 상관없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율성과 오픈십을 가지고 일하기를 위해 기업의 모든 정보를 직원에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조직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타운홀 미팅 : 본래 국회나 지역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만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타운홀 미팅이라고 부른다. 타운홀 미팅은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한크쓰리엠의 모습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옥, 퍼시스 'Change Agent'

퍼시스 본사 리뉴얼은 담당 부서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구성원과 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디자인팀은 물론 인사팀, IT팀, 재경팀 등 본사 모든 팀에 변화 관리자(Change Agent)를 지정하여 우리가 일하는 공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율좌석제 시행을 선택하고, 새로운 제도가 함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각 팀의 변화 관리자를 주축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새로운 사무환경을 구현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졌으며, 리뉴얼 이후 사무환경 만족도가 43%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퍼시스 본사, CA 활동 모습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쌍방향 소통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석이 정해져 있거나 발표자가 드러나는 공간 구성을 지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공간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서브원
캐주얼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무드의 라운지 공간이다. 다양한 가구를 활용해 공간에 재미와 편안함을 더했다.
- ⬇ 퍼시스 통합 연구소, STUDIO ONE
직급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어우러져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계단형 회의공간이다.



- ⬆ 카카오 모빌리티
탁구대 형태를 빌려 회의공간을 윤택있게 구성했다. 상석이 별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 ➡ 퍼시스, 생각의 정원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비격식적인 형태의 소통 공간이다.



I	프로듀스 A to Z
	<i>I'm the PD of my own</i>
#나를_설계한다 #내가_만들어가는_포트폴리오 #나를위한_경험 쌓기 #승진보다성장	
A부터 Z까지 사내에서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자신이 참여한 일에 대해 아웃풋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만을 커리어 개발로 보지 않고 관련업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길 희망한다. 회사에서 성장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해내기를 원한다. 내가 참여한 일에 대해 명확한 아웃풋을 내고자 하며, 자기 커리어를 직접 만들어가고자 노력한다. 승진만을 커리어 개발로 보지 않고 내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기에 맡은 업무의 R&R에서부터 이 일의 비전과 팀 목표 간 연계성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친구들은 함께 일을 할 때 궁금한 게 많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우리 팀 일이 맞는지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야 해요.”

(X세대 직장인, 40대)

내가 어디까지 직접 해볼 수 있나, 경험 쌓기 #나를_설계한다

젊은 직장인들은 내가 맡은 일에 온전히 PM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 그들에게 일방적(Top-down)으로 전달받은 업무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월급을 받기 위해 하는 일’ 또는 ‘내 이름으로 썼지만 내 생각이 아닌 보고서’일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한다. 공평한 업무 분배를 통해 아웃풋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만의 전문성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밀레니얼 직장인을 위해, 기업들은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현까지 가능한 사내 벤처 제도 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제는 승진보다 나의 성장이 최우선 #승진보다성장

연차를 채워 승진하는 것은 밀레니얼 직장인의 목표가 아니다. 기존의 경력개발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수평적 확장), 어느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수직적 확장)라는 2D(평면)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언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한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어의 지향점(Dimension)이 변화하고 있다. 즉 승진보다도 나의 커리어를 내 업무 적성에 맞게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한 밀레니얼 세대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늘 준비해두며, 만약 회사에서 성장하기 어렵거나 조직 또는 업무가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떠날 각오가 돼 있다.



 삼성전자 C랩(크리에이티브 랩) 현업에 신경 쓰지 않고 당선된 아이디어의 프로젝트가 달성될 때까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TIP!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교육·세미나 공간 확대

프로듀스 A to Z로 설명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 욕구와 전문성에 대한 갈증은 사내 교육 및 워크숍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무별 교육, 직급별 교육, 프로젝트 워크숍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와 함께 사내 교육공간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유연한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GS리테일 인원수, 용도 등에 따라 공간 구획을 자유롭게 변형 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 공간

교육·워크숍·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폴딩도어, 무빙월 등을 활용하여 공간 자체에 변동성 및 확장성을 부여하거나 이동과 재조합이 수월한 바퀴가 달린 모듈형 가구(1인 가구, 화이트보드, 차음 및 차폐 기능이 있는 스크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多多 옵션

Further Option Preferred

#자율적이라는_것은_선택지를_다양하게_주는_것
#자율적_업무환경 #공간선택 #워킹노마드

천편일률적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근무환경의 다양한 선택지는 필수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공간은 물론 직업 또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며 여러 대안을 만들어두고 결정한다.

밀레니얼은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익숙한 세대이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이다. 신체조건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데스크, 컨디션이 나쁠 때 휴식할 수 있는 1인 휴게공간, 생각한 것을 바로 만들어보고 실험해볼 수 있는 메이커스 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페라운지 등 가구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최근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다양한 오피스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딱 맞는 공간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옵션은 필수다 #공간선택

디지털 노마드 Digital Nomad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1997년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이다. 과거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프리랜서 또는 IT 전문가에게만 국한되어 쓰이는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업무 리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모두가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된 지금의 환경은 밀레니얼 직장인들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최근 자율좌석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공간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카페, 라이브러리와 같은 형태의 공간은 창의적인 업무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직장도 일하는 방식도 다 내가 선택한다 #워킹노마드

비단 내가 오늘 일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직장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다. 늘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시도한다.

“첫 직장이면 무조건 이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세 번 했는데요. 두 번째 직장은 연봉을 한참 올렸는데도 조직문화가 잘 안 맞아서 두 달 다녔어요.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직은 나를 위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직장인, 30대)

밀레니얼 직장인들에게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직장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입사 이후에도 워라밸, 연봉, 커리어, 일의 재미, 근무시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 등을 이유로 지금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는지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한다.

TIP! 업무행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마련

오피스에서 ‘다다옵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각각의 공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각 공간마다 성격을 고려하여 가구를 계획해야 한다. 데스크의 형태나 조합 방식, 스크린의 유무나 높이를 달리하여 공간에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같은 세팅의 가구라고 해도 배치, 위치, 동선, 채광 및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SK D&D OFFICE ALIVE

SKD&D의 새로운 업무공간 ‘오피스 얼라이브^{Office Alive}’는 사용자가 업무행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계했다. 팀 단위로 협업하며 일하는 공간, 개인이 집중하여 일하는 공간, 탐색과 기획을 위한 공간부터 여유롭게 일하며 생각을 연결하는 공간까지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마다 가구 배치를 달리하여 공간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냈다.

일반적인 워크스테이션, 듀얼 모니터가 세팅된 데스크, 핫데스크, 포커스룸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전체 공간은 자율좌석제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또는 키오스크에서 예약 후 사용 가능하다.



2 개인이 집중하여 일하는 공간



1 팀 단위로 협업하여 일하는 공간



3 탐색과 기획을 위한 공간



4 여유롭게 일하며 생각을 연결하는 공간

	오피스 스트리밍
	<i>Exhibit your office</i>
#회사는_업무만_하는_곳이_아니라_보여지는_곳이기도 #있어빌리티 #쇼미더오피스	
자신의 일상을 SNS에 전시하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직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회사에서의 일상을 중계하며 자신의 능력과 고생을 인정받으려는 동시에 회사를 자랑하며 애사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오피스는 오직 일하는 엄숙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이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다. 하지만 SNS 접속이 일상인 밀레니얼 직장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SNS 포스팅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오피스도 예외는 아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여줄 거리이기도 한 것이다. 오피스 공간을 포함한 직장 생활 전반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수단이 된다.

회사에서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자랑함 #있어빌리티

나의 삶을 온라인에 ‘중계’하는 데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여러 개의 SNS 계정을 통해 나의 삶을 다채롭게 디자인해 나간다. 이들은 직장동료를 위한 계정,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 취미를 정리해둔 계정, 음식 사진만 정리한 계정 등 포스팅 특성에 맞게 팔로워와 계정의 오픈 정도를 나눈다. 밀레니얼 세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SNS에서 직장인 일상 관련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밀레니얼 직장인의 일상 속 워킹라이프의 로망을 들여다볼 수 있다.

“부장님은 자기가 먹은 음식, 애들 사진, 풍경 사진을 올리는데, 밀레니얼은 셀카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자기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내가 무었에 관심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기보다는, 이걸로 남들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 가질지, 말하자면 관심중자같은 특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X세대 직장인,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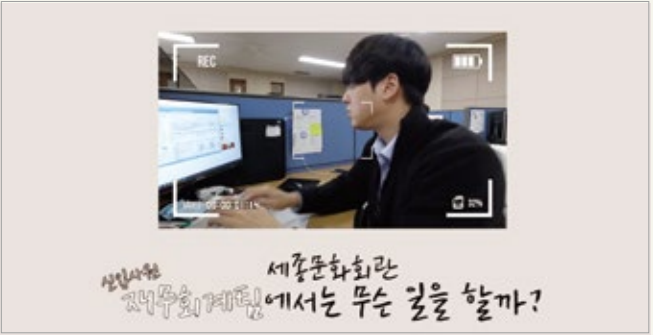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삶을 영상 또는 이미지로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익숙하다. 이들은 브이로그 V-log를 통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여 구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자 노력한다. 관련하여 이들에겐 워킹라이프도 매력적인 소재다. 일거리가 잔뜩 쌓인 사무실 책상을 포스트하거나 야근하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콘텐츠로 만들고, 실적이나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유능함을 뽐내기도 한다.

회사의 복지나 좋은 환경등을 실시간으로 자랑함 #쇼미더오피스

젊은 직장인은 사내 예쁜 공간을 자랑할만한 포토스팟으로, SNS에 업로드할 만한 멋진 요소로 여긴다. 정형적인 오피스보다는 카페처럼 꾸며 놓은 라운지, 전망 좋은 휴게실 등 오피스답지 않은 근사한 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연출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의 시설을 은근히 자랑하는 식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이용한다. 인스타그램머블한 공간을 포함해 사내 식당이나 병원 같은 직원복지 서비스를 브이로그 소재로 삼아 기업을 드러내는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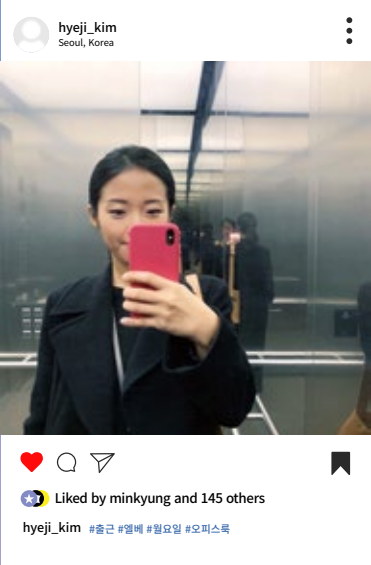


 유튜브 속 밀레니얼 직장인
 V-log를 통한 기업 직무 소개
‘직장인 브이로그’, ‘공무원 브이로그’, ‘대기업의 직무 소개’, ‘워크맨’ 등 직장생활 또는 직업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인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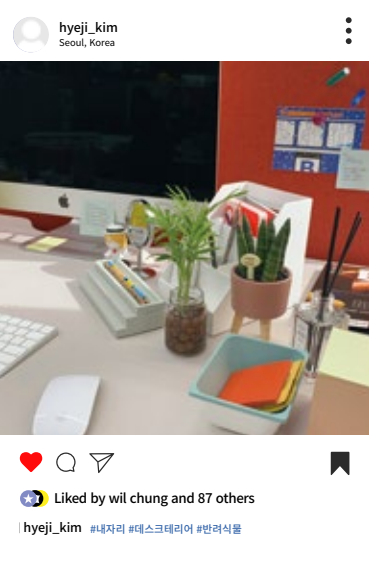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의 하루

직장인 일상 관련 SNS 해시태그로 들여다 본 밀레니얼 세대의 워킹라이프 로망



출근 #오피스룩 #아침식사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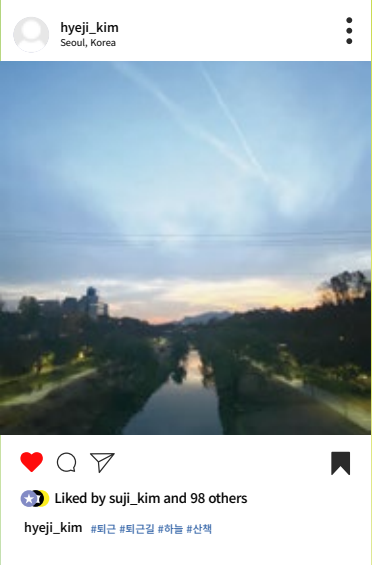
업무 #데스크테리어 #내자리



점심시간 #샐책 #휴식 #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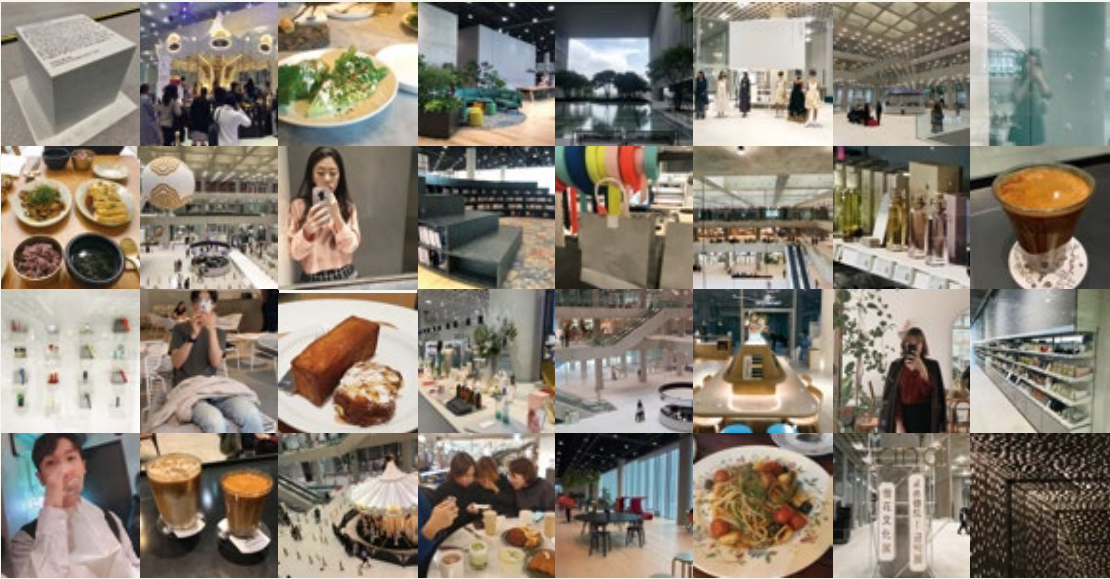
휴식 #간식 #커피 #독서



퇴근 #운동 #자기계발 #취미

TIP! 자랑하고 싶은 인스타그램머블한 오피스 환경

SNS 열풍을 타고 사옥 내지 사무실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를 맞이했다. 외부 배타적인, 그저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무실 또한 남들에게 자랑할거리가 될 수 있는 나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평가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을 인지한 기업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해 로비, 카페테리아, 정원, 휴식공간 등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머블한 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머블한 모두의 사옥

신용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2017년 11월 완공 이후 명실상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공간을 개방하고 각 층을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사옥의 저층부를 인스타그램머블한 공용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 시민들의 호감을 사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이른바 ‘용리단길’을 구성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더는 업무만을 위한 단순 오피스 빌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근무지이고, 지인 및 가족 나아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며, 기업문화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장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 하나의 문화 공간이자 경험 공간으로 사랑받는 요즘의 사옥들

▶ 퍼시스 본사의 릴렉스 존과 캐주얼 미팅 존

인스타그램머블한 나만의 힐링 스팟

오피스 내에 작은 면적을 할애하여 인스타그램머블한 사무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퍼시스 사옥의 경우 리뉴얼을 진행하며, 각각의 업무 층마다 작지만 아늑한 힐링 스팟을 의도적으로 계획해 놓았다.

업무층 가장 안쪽 공간에 탁 트인 전망을 조망하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짧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릴렉스 존이 있다. 릴렉스 존에는 1인 소파인 플레이웍스^{Playworks}가 있다. 업무 공간을 등지고 창을 바라보도록 배치하여 오토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주변 전망을 즐길 수 있다. 플레이웍스는 주위 시선을 차단하는 스크린과 함께 LED 조명, 전원 장치, 랩탑 거치대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휴게는 물론 업무몰입까지 원하는 활동을 돕는다.

또 다른 포토스팟으로는 소파로 꾸며놓은 캐주얼 미팅 공간이 있다. 오픈 오피스 가운데 위치하여 업무 중간에 간단한 캐주얼 미팅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공간 내에 눈길을 사로잡는 색다른 가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더할 수 있다. 또렷한 색상의 디자인 가구를 배치하거나 식물, 러그와 같은 소품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사무실도 충분히 인스타그램머블한 오피스가 될 수 있다.



#MILLENNIALS
#OFFICE